



삿포르역 주변과 오도리공원을 연결하는 남북 520미터의 지하보행공간이 지난 3월 12일 개통했습니다. 이 보행공간의 개통으로 기존의 '오도리-스스키노 지하도'와 함께, 삿포르 중심부인 '삿포르역-오도리역-스스키노역' 구간을 날찌와 상관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통 소식은 눈이 많은 이곳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하도는 상점가 대신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행공간 옆의 광장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보행자가 쉬어갈 수 있도록 했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이벤트가 열리는 무대, 홋카이도의 영상을 내보내는 대형 스크린 등 보행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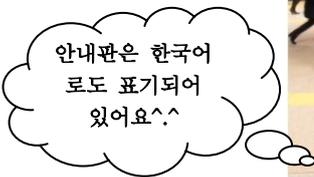
<요모조모 지하보행공간 둘러보기>

각 출구별로 형광벽면에 큼직한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매 시각 정시마다 4가지의 색으로 변합니다.

보행로 옆 쪽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 한잔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천정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지하공간에서도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연주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딱딱한 도시 생활 속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도리-스스키노 지하상점가 오픈 40주년

오도리역을 기점으로 스스키노역을 연결하는 지하도는 남북 약 400미터의 지하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71년 11월 오픈한 이래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하상점가에는 패션, 잡화, 음식점 등 약 14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어 연중 보행자와 쇼핑객으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삿포르의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만 대응 가능)

홋카이도 각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늘어서 있어 보행자의 발길을 끕니다.

지하로에 들어서면 홋카이도 선주민족인 아이누민족을 상징하는 문양이 보행자를 맞아 줍니다.

광장 한 편에 마련된 6개의 스크린에서는 다양한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어 보행자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삿포르 지하철, 그 시작과 현재!

-----Sapporo Subway-----



다른 지하철과 어떤 점이 달라서 삿포르 방식이라 불리는 거지?

1. 고무타이어 방식
2. 지상부 셸터 설치
3. 안내케도 방식



삿포르에 처음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삿포르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1971년입니다. 올림픽 개최에 맞춰 도심부와 올림픽 경기장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눈이 많은 이 지역에 적합한 지하철을 놓기로 한 것입니다.

삿포르 지하철은 현재 3개의 노선이 달리고 있으며, 다른 곳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이라 '삿포르 방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첫번째 특징은 고무타이어 방식으로 이는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며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상부에 셸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셸터는 계절대책에 효과적이고 지하공사를 할 때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안내케도 방식입니다. 보통 전철은 2개의 선로 위를 달리지만 이 방식은 지하철이 진행하는 방향을 정해줍니다.

운임은 200엔~360엔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1DAY카드, 도니치키푸, 위즈유카드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10년 계획으로 각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 색과 번호가 정해져 있어 더욱 편리~



HOKKAIDO NIPPON-HAM FIGHTERS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는 1946년 세네터스라는 팀 이름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창단 이후 2003년까지는 도쿄에 연고지로 있다가 2004년부터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도쿄에 있을 당시에는 성적이나 관객수 등 모든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닛폰햄 파이터스라는 팀 이름 앞에 홋카이도를 붙이며 '지역 밀착형 구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선수들이 상점가를 돌며 직접 홍보하기도 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했고, 여러가지 특별한 응원 모습들도 관객을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관객수는 성적에 비례한다는 말대로 2006년과 2007년에는 팀 창단 후 처음으로 리그 2연패를 달성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일본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 챔피언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활약했던 한국인 선수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통산 3000 안타를 수립하며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 된 장훈 선수는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이 팀에서 뛰었습니다. 또한 전 롯데 백인천 감독도 1962년에서 1974년까지 활약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파이터스에서 활동한 모리모토 회철 선수 또한 본인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팬들에게도 '회철'이라는 이름의 일본식 발음 애칭인 '회초리'로 불렸습니다.

현재 파이터스에는 우리 나라 야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다르빗슈 선수와 이나바 선수가 소속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사이토 유키 선수를 비롯한 6명의 루키들이 입단해 파이터스 팬들은 많은 기대를 하며 퍼시픽리그 개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1년 퍼시픽리그의 공식 개막일은 3월 25일이었으나 대진전 참사로 인해 4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그 네번째 이야기

소라치(空知), 가와카미(川上) 지역

☞ **아사히(旭)다리 -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시에 흐르는 이시카리강에 놓인 다리로 강의 도시인 아사히카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 **홋 박물관 - 가미후라노코**
홋카이도 개척이 혹독한 기상조건 속에서 발전해 온 경위와 사람과 홋의 관계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 **우류누마 습원(雨竜沼) - 우류초**
홋카이도 산지 습원 중 가장 큰 고층습원으로 홋카이도 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 **홋카이 간선용수로**
일본에서 가장 긴 농업전용 용수로로 홋카이도의 곡창지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소라치 탄광시설과 생활문화**
일본 최대의 탄광 생산지였던 소라치 지역은 아직도 마을 곳곳 그 모습을 남기고 있어 마치 지붕 없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구단 명칭의 변화

역대 우승 기록

- 세네터스(Senators 1946년)
- 도큐 플라이어스(東急 Flyers 1947년)
- 규에이 플라이어스(急映 fFlyers 1948년)
- 도큐 플라이어스(東急 Flyers 1949년~1953년)
- 도에이 플라이어스(東映 Flyers 1954년~1972년)
- 닛타쿠홈 플라이어스(日拓 Home flyers 1973년)
- 닛폰햄 파이터스(日本 HamFighters 1974~2003년)
-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2004년~)

- 퍼시픽리그 우승 5회
1962년/1981년/2006년/2007년/2009년
- 일본시리즈 우승 2회
1962년/2006년
- 인터리그 우승 1회
2007년
- 아시아시리즈 우승 1회- 2006년



NO.11 다르빗슈 슈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 다르빗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대표로 출전하며 우리나라에도 얼굴을 알리게 된 선수입니다. 1986년 오사카 출생으로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 고등학교 시절부터 에이스로 활약하며, 졸업 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파이터스에 입단했습니다. 입단 후 2007년에는 26경기에 등판해 15승 5패, 평균 자책점 1.82를 기록하며 그 시즌 최고의 투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972년 아이치현 출생인 외야수 이나바 선수는 호세이 대학 졸업 후 야구 르트 스왈로즈에 10년 정도 소속되어 있다 2005년부터 파이터스에 이적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적 첫 해에는 조금 부진한 성적이었지만 곧 본래의 컨디션을 되찾고 2006년에는 타율, 홈런타, 득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르빗슈와 함께 2008년 올림픽과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일본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NO.41 이나바 아츠노리



NO.212 B☆B

파이터스의 마지막 멤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스코트 비비. 비비의 등번호 212는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옮긴 2004년 당시의 홋카이도 시정촌 수 212개를 따서 붙인 것으로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시합중이나 시합 전후에 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다른 구단의 마스코트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비비는 2006년부터 '212개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홋카이도의 모든 시정촌을 10년에 걸쳐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는 바쁜 마스코트랍니다.

